



성남시청 너른못 광장에 설치한 8·10 성남민권운동 50주년 기념작,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의 '내 일과 내일(My job & Tomorrow)'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어제의 역사로 성남은 다가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일어난 지 50년,
성남시는 연대와 협력으로 쌓아올린 그날의 역사와 함께 또 다른 50년을 준비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격상했듯이 성남시도 이제 다양한 정책과 비전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5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척박함 속에서
기적 같은 변역을 이룬 저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습니다. <관련 기사 2~4면, 14면>

AUGUST 08
Vol.313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13호 2021년 7월 25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seongnamdiary.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틱톡 tiktok.com/@seongnamsi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시청에 등장한 그래피티라이터 심찬양의 ‘내 일과 내일’ (My Job & Tomorrow)’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
대형 그래피티 퍼포먼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성남시에서
초대한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 심찬양(활동명 Royyal Dog)의
그래피티 작업이 6월 28일 시작, 7월 8일 마무리됐다.
락카(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벽화를 그리는
심찬양 작가는 ‘꽃이 피었습니다’,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
여사 등 외국인 여성과 한복이라는 이색적 조합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다.
성남의 뿌리이자 모태인 8·10 성남민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가가 완성한 작품 제목은
‘내 일과 내일’이다. ‘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에
다가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의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을 결합했다.
성남시청 너른못 광장 대형 캔버스(가로 7.8m, 세로 14m)에
담긴 작품 ‘내 일과 내일’에 대해 심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 된 성남’이란 주제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 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단체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작업을 할 때 요구한 주제
속에 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한다. 최근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성남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
이디어를 구상하면서 ‘모태’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번에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주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고 안전한 길로 안내하며 아이가
독립하는 과정들을 그림에 담아 성남이 거쳐 온 시간과 발전
과정들을 구현하려고 한다.

성남시민들이 심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지?

제가 의도한 바를 잘 캐치하시면 좋겠고, 그림을 통해
미처 담지 못한 의미까지 시민들이 확대 해석하셔도 재미있
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림이 주는 본연의 에너지 외에도
그림이 이끌어내는 상상력,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
서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좋겠다.

작품 구현 시 본인만의 방식이나 고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재미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흥미도 이끌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림에 나의 에너지가 담킨다는 생각에 즐겁
게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작업을 한다. 그런 면에서 흥미 있
는 것,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감동시키는 것에서 방향
을 찾아 작업한다.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예명 ‘로알독 (Royyal Dog)’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god의 스펠을 뒤집어 사용한 건가?

처음 호주를 갔을 때인 6, 7년 전 ‘로알독’라는 예명
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힙합 래퍼 스눕독(Snoop Dogg)
같은 사람들이 멋있다는 생각에 ‘로알독’이라는 예명을 만
들기도 했지만 활동 초반 월세도 못 내는 힘든 시절, 내일
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길 잃은 개’ 같다고 생
각했다. 길 잃은 강아지처럼 떠돌아도 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족속으로 태어났다는 뜻에서 앞에 ‘로알’이라
는 단어를 붙였다. 지금은 걱정 안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
어서 ‘로알독’이라는 예명은 그 당시 힘든 시절을 떠올리는
이름이 됐다.

그래피티 작가나 아티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흥미를 가
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고 내 스토리를 담야
한다. 처음 그래피티를 했을 때 미국의 오리지널 그라
피티 작가들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결국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
다. 내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피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

완성된 작품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청사초롱을
들고 품에 안긴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다.
청사초롱 안에 그려진 남한산성과 봉국사는 아이의 앞길
을 밝힌다는 의미로 성남의 역사를, 여인의 치마폭에 담긴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장면은 성남의 어제, 아
이의 저고리에 그려진 모습은 성남의 오늘과 미래를 상징적
으로 나타낸다.

‘어제를 뛰어넘은 오늘이 있기에 더 행복한 내일을 기
대할 수 있다’는 8·10 성남민권운동의 정신처럼, 작품
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과거의 역사와 ‘우리를 지키
는’ 시민의 행동이 오늘날의 성남을 이루고, 계속해서
성장할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로 잘 전달되길 바
라본다.



8·10

성남민권운동 50주년

‘시민의 등장’ 기념식 등 행사...
성남시 태동, 시민과 함께 기억

“어제를 뛰어넘은 오늘이 있기에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는 8월 10일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주년을 맞는다. 성남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민의 등장 - 시민의 탄생, 성남을 쏘아올린다, 하나된 성남’을 주제로 성남시의 태동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체성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5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 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성남시는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또 창작극 ‘8월 토마토’(8. 10), 입체낭독극 ‘아홉컬레 구두를 신은 열한 명의 배우들’(8. 13), 기획 전시 ‘미래는 지금이다’(7. 23~8. 22) 등을 무대에 올린다.

도서관에서도 성남의 역사를 시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중앙도서관은 ‘도시화, 그리고 삶’을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여기, 당신의 성남’(8. 15까지)을 연다. 수정도서관은 도서X문장 전시 ‘도서관,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을 만나다’(8. 3~8. 29)를, 중원도서관은 성남 지역자료 북큐레이션 전시(7. 26~8. 12)를 진행한다.

앞선 7월 6일에는 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려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의 정체성과 유산을 조명하고 성남의 미래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 ‘광주대단지사건’으로 불리던 명칭은 시민 의견수렴, 관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조례개정 등을 거쳐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으로 변경 확정돼 6월 28일 명칭 선언식이 열렸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식

[8. 10.(화) 11:00]
성남시청 온누리실

시민의 등장

시민의 탄생 | 성남을 쏘아올린다 | 하나된 성남

명칭 선언식 6. 28.(화) 10:00 성남시청 온누리실 등	학술토론회 7. 6.(화) 14:00 성남시청 온누리실 등	기획전시 미래는 지금이다 7. 23.(화) ~ 8. 22.(화) * 오프닝 8. 10(화) 17:00 성남아트센터 유프미술관	성남전시 성남에 새겨진 기억 8. 10.(화) ~ 9. 10.(금) 성남시청 공강갤러리	유복향구(무용극) 8월 토마토 8. 10.(화) 19:3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토론회 6. 30.(목) 14:00 아람청소년수련관	낭독극 한국의 도시화와 광주대단지 성남 7. 22.(목) 10:00 성남시청 온누리실	공연 황두지 8. 7.(토) ~ 8. 8.(일) 15:0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동판 및 안내판 제막식 8. 10.(화) 15:00 성남시청외곽로 앞	낭독극 아홉컬레 구두를 신은 열한 명의 배우들 8. 13.(금) 19:3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성남시

주민자치과 인권보장팀 031-729-4835





【특별기고 |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인간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성남시는 우리나라 도시발전사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꾸어 온 현장이다. 성남의 역사에서 1971년 8월 10일은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 존엄과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요구한 날이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의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기 위해 1968년에 마련한 신도시계획으로 지금의 성남시 원도심지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는 무허가건축물이 급증해 60년대 후반에 13만6,650동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일부는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일부는 토지 매입가격이 낮은 남한산성 자락의 한적한 산골 마을로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1969년 1년 동안 서울에 406동 1만5,84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광주대단지에도 철거민 이주가 시작됐다. 난민촌 수준의 광주대단지는 일가족이 천막 속에서 얼어 죽기도 했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데 일거리가 없었다. 굶주림 때문에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주민의 생활상은 참혹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서울시장 김현옥은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현장에 나갈 때 항상 ‘돌격’이라는 단어를 새긴 헬멧을 쓰고 다녔다. 그의 저돌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에서 잘 보이도록 마포 와우산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1970년 4월 8일 준공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5층짜리 와우아파트가 붕괴해 34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해 김현옥 시장은 사임했다.



와우아파트 붕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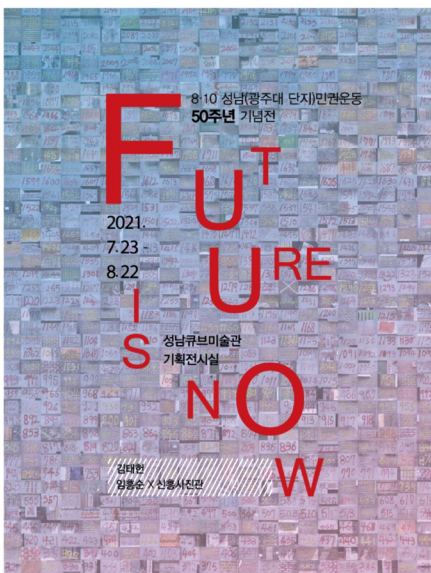
제7대 대통령 선거(1971.4.27.)를 앞두고 1970년 12월 21일 광주대단지를 시찰하는 신민당 김대중 후보(사진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1970년 말 신민당은 경기도 광주대단지 주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구호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그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철거민들에게 서울시는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 원에 분양해 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땅값이 평당 8천~1만6천 원으로 치솟자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철거민 중에는 서울의 무허가 주택의 세입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딱지’라고 불리는 입주증이나 천막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대단지 안에서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다시 강제 철거돼 정착한 곳이 ‘달나라 별나라’로 불렸던 은행동 일대였다. 단지 안 무허가 판잣집은 5,121채에 달했다. 금광2동과 은행동 지역을 자혜촌(慈惠村)이라고 불렀는데, 광주대단지에서 철거된 주민 4,300가구 2만여 명이 8평의 땅에 ‘삿갓집’이라고 하는 움막을 짓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식구들이 포개서 자야만 했고, 재래식 변소 6개를 공동사용해야 했다. 동아일보 1971년 10월 12일 <알몸 월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처참한 생활상이 알려졌다. 1971년 8월 10일의 시위는, 주민들과의 면담을 약속한 양택식 서울시장(임기 1970. 4. ~ 1974. 9.)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결과였다. 주민들은 “모이자, 뭉치자, 꺾기하자 시정(是正) 대열에!”라는 구호를 적은 전단지 등을 돌려 군중을 모았다. 격분한 주민들은 “배고파 우는 사람 세금으로 자극 말라”, “일자리를 달라”, “천 원에 매수한 땅 만 원에 폭리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격렬한 행동을 전개했다. ‘난동’, ‘폭동’ 등으로 표현됐던 이 사건은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봉기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광주대단지라는 황무지 생활환경이 원인이 된 것이다. 잘못된 철거민 이주정책을 바로 잡고자 한 주민들의 항쟁이었다. 올해는 1961년부터 시작된 모란계적 60주년이 되고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이 됐다. 우리 고장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더욱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가야겠다.

기념展 ‘Future is Now(미래는 지금이다)’

8월 22일까지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서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7월 23일~8월 22일 기념展 - Future is Now(미래는 지금이다)를 연다.

임흥순, 김태현, 신홍사진관 등 6명의 작가가 평면, 입체, 영상, 설치작품 60여 점을 전시하는 이번 기념전은 성남의 시간 속 흔적들을 훑아보고 기록과 공간을 바라보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성남은 짧은 도시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국 근대도시공간이 가졌던 쟁점들이 집약된 공간이다. 서울 철거민 이주와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분당신도시에 이은 판교개발 그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 중인 원도심은, 한국 도시의 성장과 쇠락, 새로운 부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시는 성남의 실체에 다가서려는 오랜 작업들을 통해 작가들이 바라보는 성남의 현재 속 과거와 미래를 조우하고 투영해보는 자리로 구성됐다.

김태현 작가는 <성남을 쓰다>, <금광동 수인번호> 등의 작품으로 성남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확장을 통해 도시문제의 비평적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소개한다. 성남 골목길에서 본 색을 수집해 캔버스에 재현한 <성남의 빛바랜 색>, 지금은 사라진 성남1공단 한국빠이로트드 공장에서 철거된 물품들을 채집해 오브제로 구성한 <나를 잊지 말아요> 등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는 인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흥순 작가와 사진 기반 지역예술 프로젝트 그룹인 신홍사진관의 협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공간을 ‘공공기관 로비’, ‘아파트 분양관’, ‘태평동 옥상’, ‘천막’이라는 4개의 모티브로 나눠 건축 도면과 같이 배치해 설치한다. 과거의 성남인 광주대단지 사건의 심리적 풍경과 중첩한 8·10 성남민권운동의 미래 풍경이 공존하는 성남을 모색한다. 전시기획부 박동기 차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의 성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는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 고된 하루하루가 함께 했음을 기억하고 공감해 줬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 www.snab.or.kr



청년들의 내일을 만드는 공간

판교역 지하공간에 성남시청년지원센터·판교일자리센터·성남창업카페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성남시는 판교역 지하 연결도로(알파지하광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엔 성남시청년지원센터와 판교일자리센터, 성남창업카페 세 공간이 몇 걸음 안에 이웃하며 자리하고 있다.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판교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판교는 청년들의 재미와 힘이 있고, 여가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넓고 깨끗하게 꾸며진 공유부엌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청년세프가 참여하는 소셜다이닝 지원 '오늘은 같이 먹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터디 모임이나 강의 들을 수 있는 세미나실과 휴게공간인 감성라운지도 마련됐다. 유튜브크리에이터 준비생을 위한 미디어실(1·2인실)은 컴퓨터, 카메라, 조명 등을 다 갖추고 있어 즐겁게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다. 다양한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겉걸의 취향', 여러 가지 취미를 배워보는 '폼지락 클래스', 청년들의 마음을 알

아가는 '괜찮아 청년이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실 옆 벽면의 우산을 씌워주는 토끼 그림 포토존은 '겉걸의 취향' 활동을 했던 청년 그림작가 지망생 '파피'의 그림이다. 힘든 청년들에게 '비가와도 괜찮아,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판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참여할 수 있다. 공간 대여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운영한다(토요일 10:00~15:00, 공휴일 휴무).

이민경 센터장은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판교가 성남

시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서 청년 허브 역할을 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판교 031-704-3056, 판교역로 146번길 17



판교일자리센터

지난 7월 1일 문을 연 판교일자리센터는 취업과 이(전)직을 준비하는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취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미나실과 상담실, AI·VR 체험실, 구직자 검색대 등을 갖추고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공휴일 휴무).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사들의 취업 상담과 AI·VR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홈페이지 예약)과 면접정장도 무료 대여한다. ZOOM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랜선 잡카페 상담과 전문가의 취업준비 전략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잡멘토링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이용대상자다.

이상익 센터장은 "판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터가 많은 곳이다. 이런 명성만큼, 이곳을 찾는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판교일자리센터
이상익
센터장

판교일자리센터 031-781-4420, 판교역로 146번길 9



성남창업카페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성남창업카페는 창업(카페) 공간 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 대상은 일반시민 및 예비창업자와 1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전문가 상담, 멘토링,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무인로봇바리스타 B:eat가 있는 북카페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휴게공간이다. 스터디카페(회원제·현장 신청접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는 미팅룸(회원제·사전예약)과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일하는 창업공간(심사·선발 후 이용), 인포&라운지를 갖추고 있다.

창업지원 및 미팅룸 대관 등은 성남산업진흥원 정글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한다(토요일 대관필요 시 운영 / 공휴일 휴무).

성남창업카페 031-781-8870, 판교역로 146번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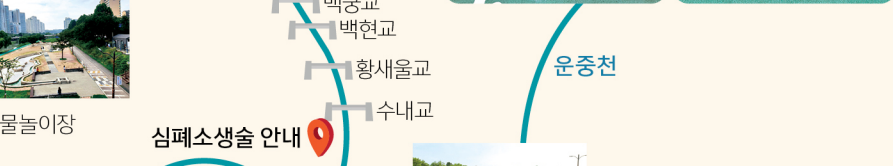
기자가 가봤어요! 탄천에 조성된 걷기 좋은 길

탄천을 따라 안전하게 건강정보 안내받으며 걸어보자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용인방향



탄천은 용인시계(상류)에서부터 서울시계(하류)까지 15.85km 길이로 성남시를 가로지르며 좌우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돼 있다. 계절마다 피는 화사한 꽃들은 보는 즐거움을 주고 여름에는 신록이 우거져 피로를 풀어준다. 탄천의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 또한 시민들에게 큰 안식을 주는, 존재 자체로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곳이다. 탄천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헌 선생이 서울 주변의 10대 명승지로 손꼽은 명승지다. 최근에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탄천에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됐다.

탄천 보행자도로에 1km 단위로 구간 거리를 표시하고,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에너지소모량(65kg 성인이 6km/h 속도로 걷기 기준)과 걷기 운동을 독려하는 건강 문구도 함께 표시해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구간 거리는 시 경계부터 1km 단위(50kcal씩 증가)로 표시해 어느 지점에서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본인의 이동 거리와 에너지소모량을 가늠할 수 있다. 500m마다 표시된 **4가지 건강 문구(시선정면·허리펴기·보폭넓게·빠른걸음)** 가이드에 따라 걸으면 더 큰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민들에게 걷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태평 물놀이장·운동시설 인근, 둔전교 인근, 성남교육지원청 인근, 수내 댜돌공원, 신기초등학교 인근, 청솔마을 507~508동 인근(탄천4지하보도 앞) 등 **8곳에 건강정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올바른 걷기 운동 안내, 치매 예방수칙 3·3·3, 감염병 예방수칙, 심폐소생술 실행방법**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태평 물놀이장에서 **심폐소생술 실행방법 안내**를 읽어본 후 용인 방향으로 걸었다. 조금 떨어진 태평 운동시설에는 더운 날씨에도 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서 치매 예방수칙 안내판을 만났다. 백로가 한가로이 먹이를 사냥하는 수내 습지생태원을 지나 둔전교까지 제법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둔전교 인근에서 만난 **올바른 걷기 운동 안내판**의 걷기 운동 효과를 읽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심장병, 유방암 및 대장암, 치매 예방 등등 걷기만 해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탄천 길을 걸으며 징검다리 사이를 흐르는 물을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여수대교 근처에는 11월까지 운영하는 탄천 자전거정비소(일요일·공휴일 휴무)가 있어 가벼운 수리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곱게 꾸며놓은 화단을 구경하고 사송교를 지나면 코리아디자인센터 근처에서도 **올바른 걷기 운동법**을 안내해 준다. 늦은 오후가 되자 방야교와 이매교 사이 너구리 서식지에서 진짜 너구리를 만났다. 야생 너구리 얼굴을 처음 제대로 봤다. 살아있는 생태계 현장이다. 양현교를 지나 성남교육지원청 인근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준다.



올바른 걷기운동 안내

Beginner's Guide to Walking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요!

올바른 걷기 자세

- 1. 10~15cm 일음 횡행
- 2. 프로 돌이키고, 앞으로 내딛
- 3. 가슴 쪽으로 앞다
- 4. 발끝을 천 모양
- 5. 자기 가-100cm

5도 앞으로 기울임

L자 또는 V자 모양

공기 세우고, 어깨의 가슴을 펴

11자로 걷기

4도 2도

뒤꿈치 > 발바닥 > 발가락

걷기운동의 효과

- 심장 및 뇌혈관 계통
- 체중 감소 효과
- 고혈압 위험 감소
- 유방암 및 대장암 예방
- 비만 예방 효과
- 우울증 예방
- 수면의 질 개선
- 치매 예방

치매예방수칙 3·3·3

Dementia Prevention Guidelines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가지 즐길 것

- 운동: 일주일에 150분을 꾸준히 하세요.
- 식사: 영양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 독서: 독서량 늘리고 읽으세요.

3가지 참을 것

- 술: 술은 한 잔에 3잔보다 적게 마세요.
- 금연: 담배는 끊으세요.
- 뇌손상 예방: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가지 행할 것

- 건강검진: 혈당, 콜레스테롤, 인지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 소통: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 치매조기발견: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조기 발견을 앞당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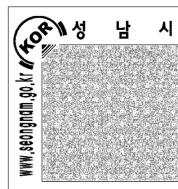
서현교를 지나면, 황새울공원과 탄천이 만나는 갈림길이 나온다. 우측 작은 보행자 다리를 건너면 수내 댜돌공원에 **심폐소생술 실행방법 안내**가 있다. 수내교를 지나면서 파란 잔디밭 파크골프장을 만난다. 황새울교, 백현교 오른쪽에 잡월드가 보인다. 정자동 백궁교 아래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체조를 해온 전통 선술수련장이 있다.

궁내교에서 서울시계까지는 11km, 용인시계까지는 5km가 남았다. 단독주택이 끝나는 지점, 정자교를 지나니 한 무더기 원추리꽃이 화사하게 반긴다. 신기초등학교(느티마을 301동) 앞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를 읽으며, 초생달이 연상되는 신기교와 화장실과 샤워장이 잘 갖춰진 정자 물놀이장이 아름답다.

금곡교, 불정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이어진 작은 다리를 건너면 청솔마을 508동, 507동을 마주하게 된다. 족두리(풍점초) 꽃이 여름 코스모스와 어울려 한창 피고 있다. 바로 옆 탄천4지하보도 앞에 가면 **치매 예방수칙 3·3·3(3가지 즐길 것, 3가지 참을 것, 3가지 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감염병 예방과 건강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탄천 걷기 좋은 길 덕분에 오늘은 1만 보를 넘게 걸었다. 건강해진 느낌이다.

한강방향



[응원해요! 스타트업]

K영유아복의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기업

영유아 특화 패션쇼핑 온라인 편집숍 플랫폼 ‘도리도리’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01 태국 파트너사와의 온라인 전략회의
02 도리도리물 대표 가족



“도리도리.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만물의 이치, 사람의 도리를 알라는 뜻을 품은 전통 육아법이다.

㈜써클의 임성민 대표가 세운 플랫폼 ‘도리도리’는 전통 육아법 ‘도리도리’에 착안해 탄생했다. 영유아에 두루 쓸모있는 패션쇼핑용품부터 육아에 필요한 정보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뜻을 담았다.

모델라인 76기, 각종 패션쇼 및 한복쇼 모델로 훗날의 외모의 임성민 대표가 지난 2019년 설립, 올해 1월 성남산업진흥원 Link-hi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도리도리 플랫폼(malldori.com). 오픈 초기지만 사전예약을 받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딸(24개월·사랑이)을 키우며 영유아복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중에는 저렴하지만 저품질 의류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양질의 옷을 발굴해 판로를 개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 사랑이와 외출하면 “아이 옷이 참 예쁘다, 어디

서 구입할 수 있느냐”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코디에 관심이 많지만, 비슷비슷한 저가 의류의 홍수 속에서 본의 아니게 ‘패션 유목민’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발품을 팔며 돌아다닐 시간은 없고, 아이 옷을 살 때마다 이번엔 어디서 구입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을 보며 착안한 아이디어가 ‘도리도리’로 탄생했다.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 유아동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신사업 모델이다.

“국내 및 영국, 유럽 등에서 검증된 백화점급 고품질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도리도리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상황별 코디 팁, 유용한 육아정보 등도 전문에디터가 만든 도리도리 매거진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편의를 위해 8월에는 성남 아동수당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을 진행 중이고, 오프라인 매장도 개점할 예정이다.

‘도리도리’는 고품질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 색감이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스타일, 세련된 원포인트 룩, 우아한 공주풍 드레스부터 실용적인 데일리룩까지 다양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두루 호평받고 있다. 실제 아이를 키우며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배려가 곳곳에 반영됐다.

임 대표는 이러한 강점에 힘입어 해외 홍보에도 적극 나

섰다. 내년 상반기에는 태국 대표 백화점으로 꼽히는 센트럴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 계획이다. 동남아 온·오프라인 마케팅 성공경험이 풍부한 태국 파트너사 GODLIKE Games로부터 현지 진출을 위한 1억 원의 투자 의향서도 받은 상태다.

“태국은 온라인 결제율도 높고 한류 인기도 뜨겁습니다. 태국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서려고 합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문의가 오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공장을 만들어 디자인과 생산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유럽 최대 온라인게임사 중 하나인 Bigpoint Korea 대표를 역임한 아내 전소희 씨도 같이 회사 운영에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다. 딸 사랑이도 모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청년 가족기업으로 격려해 주는 분

이 많으셔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판교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것도 큰 행운이고요. 아이와 부모가 같이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 큐레이션 솜씨로 발전시켜 영유아복의 한류, K영유아복의 진출에 앞장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빛내고 싶습니다.” 임성민 대표의 다짐이 희망차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13곳에 ‘아침 틈새 돌봄’ 도입 “일찍 출근할 때 맡기세요”



성남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3곳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는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 등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면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지거나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7월 1일부터 시작돼 현재 초등학생 50명이 이용 중이며, 추가로 26명이 여름방학 중 이용을 예약한 상태다.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는 가까운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학기 중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기간엔 오전 9시~오후 8시 운영해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겨도 된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13곳(정원 398명·현원 317명)은 어린이식당을 갖춰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10만 원 이내다. 어린이식당만 이용 땀 한 끼 기준 5천 원이다.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팀 031-729-2866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19. 4. 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보철, 신체·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액, 민간보험 보장액, 기타 민간·단체 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통관 5층) ☎ 729-2365, 2364, 2363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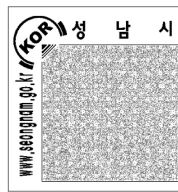
3차 '위대한 시민의 평화' 34인, 만화인과 만남

평화로 가는 길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100인을 대한민국 대표만화가 100인과 함께 웹툰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은 분단 이후 산업화의 이념의 그늘 속에서 잊히고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박제된 영웅이 아닌,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웹툰으로 현재에 되살아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정신을 만나보세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도영과 박순찬 박순찬은 <장도라>라는 시사 연재만화로 이름을 알린 작가로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을 그린다. 작가의 말 “이도영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화의 세계를 연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만화로 그리게 된 것은 만화작가로서 큰 영광입니다.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화가이자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을 조금이라도 담아내기 위해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힘쓰겠습니다.”	이시종과 바킹독 바킹독은 2012년 등단해 <낙향문사전>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로 옛 성남의 돌마면 여수리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시종을 그린다. 이시종은 1919년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세의 나이로 일제의 부역과 세금 수탈에 반대해 대왕면 수서리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작가의 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평범한 사람의 용기를 그려내고 싶습니다.”	독도와 서정은 서정은은 초등학교 대통령으로 불리는 <메이플스토리>를 그리는 작가로 21세기 독립과 평화의 심장인 독도를 그린다. 독도는 당시 일제의 첫 침탈지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의 말 “독도를 지키고 있는 반크! 그 반크를 이끌고 있는 박기태 단장이 제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 30년이 지나 독도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젠 저도 반크와 함께 독도 지킴이입니다.”			
안중근과 이두호 이두호는 <머털도사>를 그린 유명한 만화가로 항일의병장인 안중근을 그린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가 주장한 대동아공영론의 거짓됨을 밝혔으며, 사형 직전까지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 작가의 말 “안중근이 잘 알려진 인물이라 스스로 안중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작품화하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돼 부끄러웠고 열정을 다해 작품에 임하려 합니다.”	유관순과 신일숙 신일숙은 <리니지> 원작자로 알려진 작가로 유관순을 그린다.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 3·1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다. 작가의 말 “마침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인 다른 작품이 끝나자마자 유관순 웹툰을 연재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신일숙이 그려내는 유관순은 어떻게 다른가? 기대해 주십시오.”	동풍신과 정원 정원은 <올해의 미숙>으로 알려진 작가로 동풍신을 그린다. 동풍신은 함경북도 하가면 화대동에서 어린 나이에 3·1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유관순과 마찬가지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해 복讞의 유관순으로 불린다. 작가의 말 “동풍신에 대한 사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 중 비어 있는 부분은 상상하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8월 중 카카오페이지에서 100편의 작품 모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주인공 100인 중 한 명인 윤치장(재옥在獄, 1876~1971년) 의병장. 광복절을 맞아 그의 손녀 윤영의(85·구미동) 어르신을 만나봤다.

“할아버지는 신체가 좋으셨고, 90세에 쌀가마니도 번쩍 들 정도로 힘이 세셨어요.” 청계산 호랑이라 불렀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어르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할아버지는 8세에 한문서당에 입학해서 19세에 소학, 효경, 주역까지 한문 전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요. 글도 잘 쓰시고, 땃도 잘 써시고, 특히 채를 아주 잘 써서서 김장할 때 자주 도와주셨어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당시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 94) 태생인 윤치장 의병장은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에 분개해 광주군 일대에서 총기로 무장한 7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 기병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는 양주 일대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갔으며 군량미와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1908년 10월경 체포됐다. 이로 인해 교수형을 언도 받았으나 이후 징역 15년 형으로 감형됐다.

손녀(윤영의)가 기억하는 ‘청계산 호랑이’ 윤치장 의병장

“할아버지는 금토동 일대에서 윤 대장으로 불렸어요”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금토동 일대에서 윤 대장으로 불렸어요. 광주에서 밤낮으로 일본 군인과 싸웠다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쪽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군의 총에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 돌아가실 때까지 왼쪽 얼굴의 고름을 짜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르신은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는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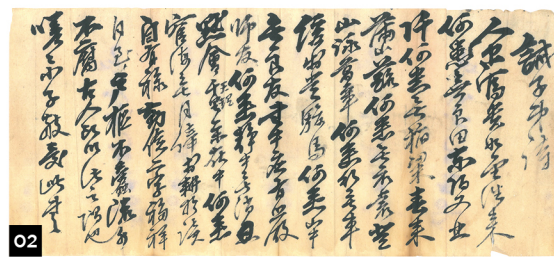
“매일 집을 비우셨고 어쩌다 할아버지 댁에 가면 쌀을 싸주시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13살 때 할아버지가 수감되셨는데, 22살 때 결혼한 뒤에 사형선고를 받으셨던 할아버지가 풀려나셔서 마을 사람들이 머리가 잘 들어와서 그렇단 말들을 했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일본 국왕이 즉위하고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다시 15년 언도를 받고 복역 중 1923년에 풀려났다고 해요.”

어르신은 그 시절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경안장 우시장에 다니시기도 했고, 서울로 가서 가게를 열고 살림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때도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다가 1971년 95세로 돌아가셨어요.”

윤치장 의병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공훈이 인정돼 1983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윤치장 의병장의 금토동 묘는 증손자 윤교상 씨가 어머니(윤치장 의병장의 손부) 남영우(86) 어르신과 함께 돌보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것들은 100여 년 전 선조들이 목숨 걸고 내 나라 내 이웃을 지키고자 했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고매한 정신만은 우리 가슴에 깊이 남을 것이다.



01 윤치장 의병장의 손녀, 윤영의 어르신 02 윤치장 의병장의 친필 <계자제사>(자제들에게 준 경계의 글) 03 윤치장 의병장 주민등록증 사진 04 윤치장 의병장의 건국훈장(독립유공 부문)

생태 이야기

한여름 숲의 멋쟁이, 사향제비나비가 살아가는 비법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한여름 보통의 나비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분주하게 꽃들 사이를 날아다닌다. 그런데 눈에 띄는 강렬한 색깔을 지니고 무척 느릿느릿 움직이며 꽃 위에서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큰 나비가 있다. 사향제비나비다. 자세히 알아보면 사향제비나비의 여유로웁은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다. 식물들은 씨앗을 맺기 위해 곤충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자신의 잎을 갉아먹는 곤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자신을 지키곤 한다. 제라늄은 곤충들이 싫어하는 향기를 발산해 곤충들을 쫓아낸다. 이질풀은 떼은 탄닌 성분을 잎 속에 가지고 있어 자신의 잎을 먹는 곤충들을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쓴다.

또 쥐방울덩굴은 아리스톨로코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독성분을 만들어 자신을 지키는 독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향제비나비는 쥐방울덩굴의 독성분을 역이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한 곤충이다.

사향제비나비는 호랑나비과에 속하며 한여름인 7~8월에 걸쳐 우리 주변 풀숲에서 만날 수 있다. 날개길이가 41~55mm



에 달하는 대형나비다. 큰 몸집과 검은 날개가 제비와 닮았고, 수컷이 몸에서 특이한 냄새를 내뿜는데 이 냄새가 사향과 비슷하다고 해 사향제비나비라는 이름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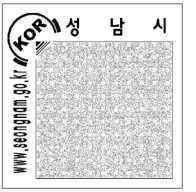
사향제비나비는 알을 낳을 때 알 표면에 독성분을 발라 쥐방울덩굴 위에 붙이고, 알을 깨고 나온 유충은 자신의 알껍데기를 먹는다. 그리고 독초인 쥐방울덩굴의 잎을 먹고 자란다. 자라면서 쥐방울덩굴의 독성분을 자신의 몸속에 축적하기 때문에 포식자인 새는 축적된 독성분을 품은 사향

제비나비 유충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

사향제비나비는 유충일 때 체내에 쌓은 독성분이 성충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체내에 쌓인 독성분이 자신을 지켜 주므로 사향제비나비는 느긋하고 당당하게 꽃들을 오가며 서두르는 법이 없다. 박각시나방 유충이 천적의 공격을 피해 잎의 뒷면에 숨어 잎을 먹거나, 낮 동안엔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그제야 잎을 먹는 것과 비교된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색으로 위장하는 많은 곤충들과 달리 사향제비나비는 검은색에 붉은 반점을 가져 눈에 띄는 색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먹어보라는 듯이 새에게 경고색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향제비나비는 다른 나비보다 나폴나폴 느린 날갯짓으로 유유히 하늘을 날아 다닌다. 이 또한 다른 나비로 오인해 먹히지 않도록 일부러 눈에 띄게 해서 독성이 있는 나비라고 새에게 알리는 몸짓이다.

7월 말부터 8월에 걸쳐 남한산성이나 주변 숲에서 성충이 된 사향제비나비를 볼 수 있다. 자신을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 만든 식물의 독을 오히려 활용해 환경에 잘 적응한 사향제비나비의 생존 비법에 새삼 관심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도 사향제비나비처럼 주어진 상황을 잘 극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미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추가 공모

8월 9~13일... 선정되면 기본설계, 조합설립지원 용역 등 행·재정적 지원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를 1~2곳 추가로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상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8.13)을 기준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성남지역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 동의율이 10% 이상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청서를 성남시청 7층 주택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 중 공공 지원할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 단지가 10곳을 넘으면 2곳을 선정한다.

시는 선정 단지에 주민설명회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단지 전체 또는 각 동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얻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 조합설립 용역비, 기본설계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6곳 단지의 리



01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02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

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선정한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5단지(1,156가구),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매화마을2단지(1,18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가 해당한다.

이중 한솔마을 주공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심의→관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말 시청 내에 전담 기구인 리모델링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 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컨설팅 등을 한다.

성남지역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47곳 단지(12만1,032가구)다.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729-8813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채택'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한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법·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 031-729-3332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착' 배달서비스 편다

5개 민간 배달앱 연동... 가맹점 중개 수수료 0.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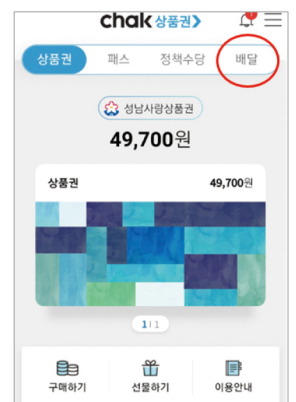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인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를 편다.

시는 위메프, 소문나삼, 배슬랭, 먹깨비, 땃똥 등 5개 민간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제휴를 해 이들 배달앱을 지역상품권 앱 착에 연동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 chak에 제휴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5개 민간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할 수 있다. 7월 19~31일 시범 운영 후 8월 2일 서비스 오픈 예정이다.

제휴 배달앱을 스마트폰에 별도로 설치한 뒤 배달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주문하는 음식 값 등은 충전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다. 주문 결제 성사 때 가맹점이 배달앱 회사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0.99~2%다. 다른 민간 배달앱 회사의 중개수수료 5~12%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 배달앱 가맹점 등록 때 별도로 내는 광고비나 앱 입점비용도 없다. 소비자는 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6~10%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충전)한 뒤 사용하면 더욱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다.

시는 착 배달서비스 확산을 위해 8월 2일부터 예산(5천만 원) 소진 때까지 5개 민간 배달앱에서 주문 뒤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5천 원권의 모바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3개 종류를 일반발행해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모바일 앱 착의 민간 배달앱 연동 페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01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와 재활치료 센터는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예약 시 대기기를 해야 할 정도로 환자가 늘었다. 환자들의 호응을 얻은 데에는 서경호 과장을 중심으로 홍지성 전문의, 최은정 전문의, 치료센터 치료사들의 환자에 대한 애정과 한 차원 높은 재활전문치료서비스가 있다.

재활의학과는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다. 진료영역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척수손상, 연하곤란 진단 및 재활, 수술 후 재활(견관절·고관절·슬관절), 절단 환자, 근골격계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 및 운동치료, 언어치료, 소아 재활이다.



02

01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의료진 02 재활치료센터 단체사진

재활의학과 특징점

- 1 뇌졸중 및 척수 손상 후 급성기 입원 환자에서부터 만성기 외래 재활 환자까지 폭넓게 환자들을 치료한다.
- 2 초음파시술, 체외충격파 시술, 등속성 운동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3 소아환자를 위한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언어치료실이 구비된 소아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성남시의료원

예약문의 031-738-7000
www.scmc.kr

서경호 과장의 전문분야는 중추신경계 재활, 말초신경계 질환(근전도·초음파), 연하곤란 재활, 아티스트 클리닉(Performing art medicine), 수술 후 재활(관절수술 및 회전근개 파열), 림프부종 재활이다.

서 과장은 동인천길병원 임상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임상과장·임상교수를 역임하고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과 재활치료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성남시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존의 연하장애용 2-채널 기기보다 4-채널 전기자극치료기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최초로 입증한 제1저자 논문을 포함, 세 편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치료 사례1

30대 여자 환자는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섬유근육통 진단 후 재활치료를 위해 의뢰됐다. 통증으로 다량의 약을 복용했는데 3개월간 꾸준히 근막통 주사요법, 체외충격파 치료, 도수치료까지 병행하면서 곧 일에 복귀 가능한 정도까지 호전됐다.

#치료 사례2

80대의 남자 환자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정밀 검사 후 오후 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됐다. 수술을 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고령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했다. 두 번의 입원치료를 포함, 2개월 넘게 요추 신경차단술, 요추 견인치료 및 물리치료 병행하면서 호전돼 3개월 후 찍은 f/u L-spine MRI에서 50% 이상 호전돼 현재도 건강하게 운동하며 잘 지내신다.

서경호 과장은 진료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성남은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환자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늦은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다”며 “환자 교육과 진료를 열심히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및 운동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지성 전문의는 한양대학교 협력 명지병원 조교수, 한도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을 거쳐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중추신경계 재활(뇌졸중·외상성 뇌손상·파킨슨), 통증 클리닉(비수술적 근골격계 초음파 치료), 수술 후 재활(어깨·무릎·고관절), 스포츠 재활, 노인재활, 족부재활(족저근막염·무지외반증), 화상재활이다.

그는 공공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싶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가장 기다린 사람이다. 공공병원에서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적정진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뿌듯함이 있기 때문이다.

#치료 사례

70대 여자가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실어증, 인지 장애, 섬망, 연하곤란 등 복합적 장애를 갖고 내원했다. 처음에는 억제대를 사용해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지만 약물·연하·인지·언어·통증 치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매일 8주간 치료하고 많이 호전되면서 퇴원 시에는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할 정도였다. 급성기일 수록 치료를 많이 해야 빨리 회복된다는 홍 전문의의 지도를 잘 따른 결과였다.

홍 전문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재활은 마라톤이다. 보호자가 먼저 지치지 않게 힘써 도와 드리겠다. 치료는 수련회와 같다. 주 5일 오전·오후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힘들지만 그 기간을 잘 이겨내면 좋아져서 퇴원하신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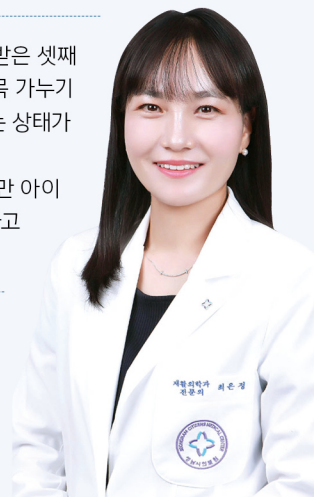
최은정 전문의의 전문 분야는 소아재활, 발달지연, 언어발달지연, 사경 및 사두증, 근전도(말초신경질환), 척수 손상, 족부 및 보조기 클리닉이다. 성남시의료원에 소아재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달이 늦은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

#치료 사례

생후 3개월에 처음 내원했고 현재 18개월 된 환아다. 산전검사서 뇌실확장증으로 진단받은 셋째 아이였는데 사지 마비의 증상이 있었고, 특히 상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14개월까지도 목 가누기가 제대로 안 되고 앉기도 불안한 상태였는데 17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잡고 서고, 잡고 걷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보호자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일을 계기로 돌까지 목 가누기가 제대로 안 될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지만 아이들의 가능성은 인간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최 전문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장애가 없음에도 교육과 지도가 부족해 장애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성남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 아동과 비슷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들의 교육과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빠른 진단을 위해 병원에 일찍 내원할 수 있게 부모님과 어린이집 등 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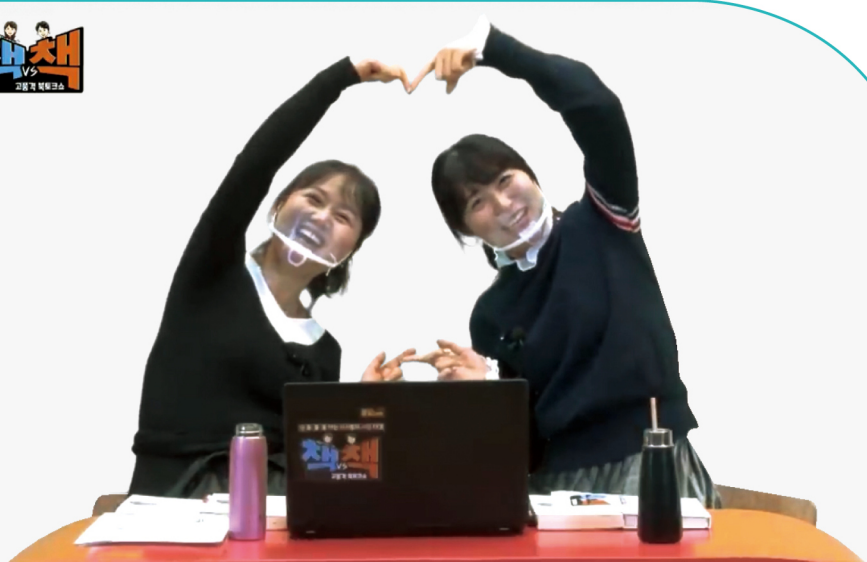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치료사들은 오늘도 재활을 통한 환자의 자립을 돕고, 한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웰메이드 서비스 ‘책vs책’, ‘시민 북큐레이터’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썰 좀 풀 줄 아는 사서들의 서평 대결! 하루 만에 동난 북키트!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연결되고 책과 책이 영상에서 만나는 공공도서관 현장을 소개한다.



책vs책, 책들은 어떻게든 만난다!

“시민서평단 S님이 소개한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는 소확행이나 오토 같은 행복론이 행복산업이 만들어낸 가짜 행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생존 불안에 쫓겨 행복 경쟁을 하기보다는 생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책의 핵심이다. 참다운 행복은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누가 감히 이 아름다운 대전제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각자도생 사회』를 권한다. 이 책은 타인을 향한 어설픈 책임감을 짊어지지 말라고 한다. 여기에서 타인은 가족을 가리킨다. 어설픈 책임감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는 덜 짊어지기 위해... (중략) 오늘 소개한 책이 여러분이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서의 행복이란 그런 것이다.”

- EP.11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vs 각자도생 사회’ 중에서



분당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채널 ‘분당도서관TV’에서 사서들이 직접 출연하고 제작하는 영상 서평프로그램 ‘책vs책’을 운영 중이다.

책vs책은 도서관 시민서평단이 추천하는 책 한 권과 사서들이 선정한 짝꿍책 한

권을 1+1으로 엮어 함께 소개한다. ‘책들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를 모토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권의 책이 주제에 따라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7회까지 진행한 시즌1은 유책(유향숙 사서)과 송책(송혜민 사서)의 서평 대결. 책의 주제와 특징, 차이점과 공통점, 시민서평단원의 한 줄 서평, 책에서 뽑은 구절까지 10분 남짓에 알차게 담았다. 시즌2는 사서들의 영상 편지와 에세이로 운영 중이다. 기자는 『죽은 자의 집 청소』와 『카트 읽는 남자』를 분석한 1화 ‘진실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요’와 노동과 삶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는 10화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VS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인상적이었다.

책 선정, 두 권의 책을 아우르는 주제와 보조 테마 선정, 스토리 구성까지 사서들의 세심한 노력과 수고를 느낀 시민들은 ‘흔한 북튜버들과는 다른 개성이 느껴진다’, ‘혼자였다면 쉽게 찾지 않을 책, 이번에도 또 도전해보겠다’는 응원 댓글을 보냈다. 다른 지역 도서관 관계자들도 격려 전화를 주고 있다.

책vs책을 제작하는 서술 사서는 “시대에 맞는 독서정보 제공,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함께 도서관도 웰메이드 서비스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공공기관 영상 같지 않은 새로움이 좋다는 소감이 있었는데, 책vs책이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선입견에 약간이나마 균열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민 북큐레이터들이 추천하는 북키트

『정원가의 열두 달』은 체코 작가이자 정원가인 카렐 차페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가의 기쁨과 걱정거리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정원을 가꾼 그의 형 요제프 차페크의 일러스트는 책을 읽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귀여움을 담당하죠. 만약 우리가 정원가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무척추동물처럼 척추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 튜더(Tasha Tudor: A Still Water Story, 2017)’도 추천합니다. 『정원가의 열두 달』은 각종 식물들을 지면으로 만났다면 ‘타샤 튜더’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판교도서관 시민 북큐레이터 정경희

이어서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를 추천하며 어린이북키트 1번과 2번을 함께 읽으면 감성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활용 방법까지 알려 준다. 알뜰살뜰 짝 채운 서평은 판교도서관의 ‘성인북키트 #3’ 소개글이다.



판교도서관은 올해 3월 ‘시민 북큐레이터가 추천하는 북키트 대출’을 시작했다. 시민 북큐레이터 회원들이 주제별 추천도서를 3권, 6권 등 다양한 묶음으로 선정하면, 도서관은 도서를 새로 구입해 북키트를 제작한다. 어린이북키트는 대출 시작 하루 만에 모두 대출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으며 현재도 대출률이 높다. 성인북키트는 어린이북키트에 비해 대출률은 낮지만 시민들이 로비에 전시된 북키트 선정 도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북키트 전시도 시민 북큐레이터 회원들이 직접 꾸민다.

시민 북큐레이터 회원들은 2020년 가을 판교도서관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한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했으며 올해 초 판교도서관과 함께 북키트 대출 계획을 수립했다. 시작(3월), 힐링(6월), 행복(9월), 감사(12월)를 주제로 선정하고, 다시 주제별로 키워드를 정해 책을 추천한다.

시민 북큐레이터 회원들이 추천하는 주제별 도서는 연령별 추천도서와 달리 이용자들이 상황과 목적에 맞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책 소개와 활용방법까지 함께 제공돼 관심 주제에 대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 북큐레이터 회원들은 올해 9~12월 진행되는 북큐레이터 심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남에서 물건 사기, 성남 택시 타기, 성남에 들어가서 밥 먹기

우건식 성남시재향군인회장에게 들어본 광주대단지 그리고 성남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01 성남시 발전을 위한 서울공항 명칭 변경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결기대회 02 1973년 푸른성남 가꾸기 범시민 걷기운동
03 88올림픽 성화봉송이 있던 종합운동장 근처 04 성남시재향군인회 우건식 회장

당시 지명은 광주군 성남출장소. 성남시재향군인회 우건식(81) 회장이 성남에 들어온 건 1970년 3월, 우건식 회장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광주출장소 모처에 파견 근무차 들어왔다”는 우 회장의 기억 속엔 광주대단지 시절의 고단함과 성남시 승격이 가져온 희망, 새롭게 시작된 터 일구기에 애쓰던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재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한병대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빨간색 기와집에 세 들어 왔어요.”

당시 빨간색 기와는 부의 상징이었다. 우 회장의 형편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난은 없었다. 이삿집이라고 볼 수 없는 허접한 물건들이 질척이는 땅바닥 위에 나뭇굴고, 주위를 둘러보면 가난과 고단함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로 인해 숫구치던 성남과 원성은 머지않아 폭발할 것만 같았다. 우 회장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1971년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붓물이 터졌구나, 당연히 올 게 온 거야.”

한밤중 트럭에 실려 와 내려진 짐짝들이 널브러진 언덕 배기에 천막을 치던 사람들, 식수공급차에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분노가 생존 전쟁으로 터져 나왔다. 생계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약속과

다른 고액 분양가, 정부의 세금 납부 강요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성남 민심은 파출소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먹고 살게만 해달라!”며 각목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그 후 정부에서는 난동 또는 폭동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우 회장의 눈에는 민중의 소리로 보였다.

불모지에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1973년 7월 1일, 그들의 합성은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

선거 때 식수 배급해주는 후보가 제일 좋은 사람

이라 생각할 만큼 여전히 식수 시설이나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성남시는,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팔도 합중시’로 불리기도 했지만 시 승격 후 시민들의 주체의식은 강해졌다. 새로운 도시에는 피워낼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었다. 서울 다녀오는 길엔 기다려서라도 성남 택시 타기, 성남에 들어가서 밥 먹기, 성남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 사기 등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마음을 보탰다.

1978년 5·4조치… 도로, 집 등 전면 개발제한 조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주택, 정비되지 않은 기반시설로 인해 도시는 여전히 허름했고 시민들의 삶 또한 피폐했다. 그래서 내려진 5·4조치는 ‘도시를 도시답게, 도시계획을 새롭게 한다’란 명목으로 모든 걸 제한했다.

우 회장은 “새로운 도시계획 발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풍경은 단대천 따라 금광동 방향으로 길게 지어진 비둘기집이다. 열 평 남짓한 공간에 벽돌 쌓고 지붕만 올려서 분양했다. 평수도, 모양도 똑같은 열 평 남짓한 집이 단대천 따라 길게 늘어서 있어 비둘기집이 연상됐다”고 말한다.

우 회장은 “어렵고 힘든 광주대단지에서 시작해 성남시민으로 50년을 살았다. 내가 살아온 성남시가 고마워 밥값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며 살기 좋은 성남으로 일궈온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덕입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준 공직 신분엔 30대 초반, 일찍부터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는 우 회장으로부터 듣는 성남엔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땀방울이, 가난 위에 지어진 시대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생활법률
Q&A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제도

Q.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A는 한 승용차가 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으나, 자동차 소재를 알 수 없는 ‘대포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정승인절차 중 대포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보통 폐차 후 등록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폐차, 그리고 등록말소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A는 현재 아버지의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소유, 즉 아버지의 소유로 돼 있지만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수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록돼 있어 한정승인 신고 시 상속재산 목록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통해 멸실차량에 대한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도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태로 멸실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하며, 운행정지 신청 이후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 또는 자동차등록절차 인수 소송을 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대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이용요금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506원 ~10,04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구분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범위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 등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본인 부담액	시간당 1,506원~10,040원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www.family.go.kr

한부모·맞벌이가정 가사돌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7월 1일(목) ~ 10월 25일(월) * 상시접수
- 참여대상 성남시에 실제 거주,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총 90가구, 선착순)
 - ①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법정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우선 선정, 법정 한부모 및 다자녀가구 우선 선정
 - ② 자녀 모두 16세 이하(중3 이하)인 가정
 - ③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맞벌이 부부 합산)
- 지원기간 7월 1일(목) ~ 11월 30일(화) * 1가구당 1개월, 월 4회 지원(1회 3시간 30분~4시간)
- 지원내용 ‘청소연구소’와 연계해 가정 내 생활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이용료 소득 및 주거면적에 따라 10~20% 자기부담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4번)

방구석 콘서트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신청일 8. 9(월) 00:00 ~ 8. 12(목) 23:59
- 공연명 빨간망토와 함께 떠나는 뮤직트립
- 시청 기간 및 방법 8. 13(금) 10:00 ~ 8. 20(금) 10:00 홈페이지 → 서비스예약 → 온라인교육(공연) 페이지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신청일 8. 2(월) 00:00~23:59
- 내용 가정에서 영유아 건강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검사(체험) 진행
- 신청방법 홈페이지(신청자 중 추첨)
- 온라인 교육 시청 및 검사(체험) 진행 8. 9(월) 10:00 ~ 8. 13(금) 17:00 홈페이지 → 서비스예약 → 온라인교육(공연) 페이지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 한시적 특별지원

- 대상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 이용요금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시간당 1,004원~4,016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놀이 공간 이용

- 이용시간 월~금요일 10:00~17:00
 - * 예약제 운영 10:00~11:30, 13:00~14:30, 15:00~16:3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이용대상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부모·자녀 동반입실)
-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 내부 공동육아나눔터
- 내용 부모와 자녀가 내방해 장난감 및 도서 이용(* 1가족만 입실 가능)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자녀양육상담실
일정	전화 및 사이버상담만 가능	사이버상담만 가능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련 재직자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신청	월~금요일 09:00~18:00(전화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문의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8월 장난감도서관 회원모집(선착순 신청)
- 신청지점 금광점, 분당구청점, 수정점, 양지점, 중원점, 태평점, 판교점(지점별 모집인원 상이)
- 신청기간 8. 1(일) 00:00 ~ 8. 14(토) 23:59(선착순 신청)

온라인 장난감 바자회 ‘더더마켓’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내용 장난감 중고 바자회(1가정당 3점 구매 가능)

지점명	신청일	수령일	문의
분당구청점	8. 3(화) 14:00~15:00	8. 7(토)	분당구청아이사랑놀이터 031-715-1640
금광점	8. 17(화) 14:00~15:00	8. 21(토)	금광아이사랑놀이터 031-743-1640

- 참여방법 카페가입 후 승인요청 → 지점별 바자회 게시판 내 일정 및 장난감 목록확인 → 판매당일 선착순 댓글 업로드 후 확정 댓글 확인 → 해당일 장난감 수령(사전 예약 후 해당지점 방문 수령 및 현장 현금 납부)
-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markettoy>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

031-708-3588

“내가 쓴 글이 책으로”

2021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 문학아카데미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가 2016년 처음 개설해 지금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문학아카데미에 시·소설·수필·동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진행일정 2021년 9~11월(12주)
- 강의진행 비대면 온라인 수업(ZOOM 프로그램 이용), 코로나 단계에 따라 일부 대면 수업여부 결정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책테마파크 방문접수(마감 시까지)
- 수강료 한 강좌당 10만 원(3개월/ 12회 강의)
- 혜택 연말 문학아카데미 전집 발간(수강자 참여), 개별 수료증 발급(10회 이상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정원	강사	주요경력	강의시간	첫수업
일반부	시창작	25명	허형만	시인/현 국립목포대 명예교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9.3(예정)
일반부	소설·수필창작	25명	박덕규	작가/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9.1(예정)
일반부	동화창작	25명	노경수	동화작가/한경대학교, 한서대학교 겸임교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9.7(예정)
청소년	소설창작	15명	김설원	작가/2019년 제12회 창비 장편소설상 당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00분~12시	9.5(예정)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취업대비교육

- 교육비 10만 원(수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 대상 성남시 인근지역 거주 미취업·경력단절여성

IP-R&D전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대상자 중 이공계 전공자로(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교육 수료 후 지식재산 및 특허 분야로 취업 계획이 분명한 자
교육내용	지식재산권, 특허 정보 조사, IP-R&D 환경분석, 특허맵 분석, 특허 회피전략 등
교육일정	8. 16 ~ 10. 22/ 월~금 9:30~13:30/ 총47일, 188시간
서류접수마감	8. 6(금) 18:00까지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교육대상	교육 수료 후 세무회계직종으로 취업 계획이 분명한 자
교육내용	회계의 기본 원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케이랩활용실무 등
교육일정	8. 30 ~ 11. 17/ 월~금 14:00~18:00/ 총55일, 220시간
서류접수마감	8. 17(화) 18:00까지

디지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교육 수료 후 마케팅 직무로 취업 계획이 분명한 자(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교육내용	마케팅의 이해, 마케팅 이론 및 실습, 디지털마케팅 실습 프로젝트, 파워포인트/엑셀 이론 및 실무, 취업대비특강 등
교육일정	9. 1 ~ 11. 18/ 월~금 9:30~13:30/ 총54일, 216시간
서류접수마감	8. 20(금) 18:00까지

치매예방 시니어케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교육 수료 후 치매예방 시니어케어전문가로 취업 계획이 분명한 자
교육내용	노인복지정책, 치매 관리 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획 및 발표회, 취업대비특강 등
교육일정	9. 6 ~ 10. 21/ 월~금 14:00~18:00/ 총31일, 124시간
서류접수마감	8. 24(화) 18:00까지

쇼핑몰창업 & 프리마켓셀러 과정	
교육대상	교육 수료 후 전자상거래 분야 창업 계획이 분명한 자(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교육내용	포토숍, 상품사진 촬영기법, 사이트 구축, 오픈마켓 판매 프로세스, 블로그/SNS 활용 홍보 마케팅, 프리마켓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일정	9. 6 ~ 12. 1/ 월~금 09:30~13:30/ 총60일, 240시간
서류접수마감	8. 24(화) 18:00까지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031-739-4086, 4087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제41기 교육훈련생 모집

- 모집기간 7. 14(수) ~ 8. 13(금)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훈련직종 및 모집인원(총 70명) * 모집인원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훈련직종	모집인원	자격취득분야	훈련기간
스마트 전기	24명	전기기능사	약 3개월(350시간) 2021. 8. 24 ~ 11. 25 * 교육훈련비 무료, 교육실비 지급
시설관리사(에너지)	23명	에너지관리기능사	
빌딩관리사(공조냉동)	23명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접수방법 - 이메일: nyaa11@kopo.ac.kr, unaco@kopo.ac.kr
- 홈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신학협력처(<https://sanhak.kopo.ac.kr/seongnam>) * 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센터 → 공지사항
- 방문접수: 8. 3(화) ~ 8. 12(목)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수정구 수정로 398,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도서관 2층)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및 기초지자체 최초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 가결



성남시의회는 6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6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뤄졌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천 원으로 총 3조 6,012억 5,236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

남용삼 의원, 조정식 의원, 안광립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최미경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서은경, 안광립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가결돼 결의문을 낭독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올림픽지도에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국제 스포츠행사에 사용해 왔고,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임을 담았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의안내역(2021. 6. 13)

의안번호	안건 명	의결내용
4546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4547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48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4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0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1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455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3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554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5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455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57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8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59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560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6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56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56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64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65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456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567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68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569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7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71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
4572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의안내역(2021. 6. 13)

의안번호	안건 명	의결내용
4573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장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74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575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4576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사설) 민간위탁 동의안	"
4577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57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4579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4580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8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82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583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중 관련 청원	심사보류
4584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58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86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문	"
458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4588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채택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의안내역(2021. 6. 15)

의안번호	안건 명	의결내용
4589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4590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459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59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459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596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문	"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알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개시일	발의자	조례명
2021. 5. 14	김선임 외 10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5. 21	안광림 외 13명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1. 6. 28	이상호 외 18명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2021. 7. 5	김정희 외 27명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는 6월 15일 오후 2시 20분 (구)시민회관 부지에 건립 중인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은 원도심 주민들에게 문화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시의료원과 상호 연계된 기능을 수립하기 위해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된다. 2015년부터 기존 시민회관의 활용 방안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은 1시간가량의 현장 방문이 종료된 후 "해당 시설 건립은 의료원의 기능 강화는 물론 원도심의 문화공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준공 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홍보 UCC 공모 심사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18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성남시의회 홍보 UCC 공모전' 응모 작품을 심사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활용성과 대중성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아년×태태' 팀이 최우수, '다움1'과 '오수민' 팀이 우수, '해시태그', '친구대영상회', '다움2' 팀이 장려로 선정됐다. 공모작은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신청했으며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의회 소식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
궁금한 건 다 물어봐 게시



건강칼럼

쉽지 않은 질환, 당뇨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소영
성남의료원 내분비내과 분과장

1

당뇨병이란 무엇인가요?

당뇨병이란 혈액 중 포도당(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 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하나인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로,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고혈당을 일으킵니다.

2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전적 요인

당뇨병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과체중·비만, 연령,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당뇨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된 비만은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하므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운동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몸에 오래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합니다.

3

당뇨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을 통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망막증, 신경합병증 등과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식이 조절, 운동 조절과 같은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 요법으로 이뤄집니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혈당 조절은 식사요법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식사 요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요법의 효과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식사요법이 잘 유지된다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식사 요법과 약물 요법이 균형을 이뤄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를 치료 목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들-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신경병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요법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약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해 혈당조절이 어렵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량보다 열량을 너무 적게 섭취한다면, 성장기 소아당뇨인의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요법을 통해 균등하게 여러 영양소들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사이의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요법의 기본원칙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적절한 열량섭취 및 규칙

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합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며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상승을 촉진시킵니다.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식이섬유소는 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혈당 조절과 심장순환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 섭취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과도한 소금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술은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건강교실

만 65세(1956년생) 어르신 폐렴 무료접종 7~8월 집중 시행

성남시 보건소는 올해 만 65세(1956년생, 생일 무관)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무료예방접종을 7월, 8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암사망률 1위 폐암보다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은 정도로 중증호흡기 감염병이다. 65세 이상 환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젊은 층의 70배에 달하며, 노인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폐렴은 예방이 최선이며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현재 65세 어르신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23가지 종류를 방어하는 23가 백신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다른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2주 간격을 유지해 접종하면 되므로 안전하게 접종하길 권고한다. 폐렴구균 접종은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발병 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접종비용은 5만~10만 원 내외이며, 만 65세 이상은 평생 1회에 한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하다. 늦어도 9월 이내 가까운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수정구보건소 031-729-3847, 4078, 중원구보건소 031-729-3904, 3928
분당구보건소 031-729-3966, 3967

성남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성남시 3개 구 보건소가 8월 16일~10월 31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우편으로 선정통지서를 받은 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 가구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따라 조사원은 방문 전 일일건강 체크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에 임한다.

조사 결과는 건강행태와 수준,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을 고려한 성남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852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697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72

성인 자가구강건강 습관 만들기 '야 너뒤 올바른 구강 습관 만들 수 있어'

수정구보건소는 성남시 성인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비대면 올바른 자가구강건강 습관 만들기를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2002년생 이상 성남시민 및 성남시 근로자 중 SNS(인스타그램) 이용이 가능한 사람이며,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GC2in3XB)에서 신청하면 된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하는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subo_ddon @subo_ss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 #건강증진 #구강습관도전 #야 너뒤구강습관만들수있어】 태그를 걸어 20일간 매일 인증하면 구강 관리 물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health)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구강보건실) 031-729-3858



장서각 산책

정조의 치제문(致祭文)을 통한 통치



박용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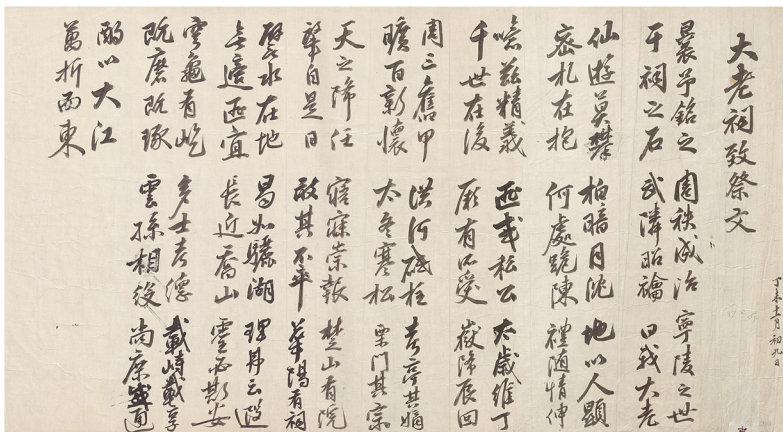
만기(萬機). 조선시대 국왕의 모든 활동은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행위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개인적 정회를 표현한 문학 역시 넓게 보면 국왕의 통치행위에 포함되는 의도된 행위였다. 왕실인물, 대신, 국가에 큰 공적을 남긴 신하에게 제물이나 제문을 보내 제사지내는 치제(致祭)는 국가의례로서의 공적 성격과 개인의 정회가 드러나기 때문에 국왕의 통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의 중흥을 이끈 정조는 개인적으로도 문학, 서예, 학술 등에 뛰어났던 국왕이었다. 많은 시문을 지었지만 유독 다른 국왕에 비해 치제문을 많이 남겼다. 『홍재전서』에 실린 정조의 치제문은 모두 430편으로, 숙종 10편, 영조 140편에 비해 매우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왕실인물이나 대신에 국한됐던 이전의 국왕에 비해 선현(先賢), 관료, 서원 배향 인물 등 다양한 인물에게 치제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치제문을 지은 논리는 무엇인가? 정조는 '사현(祀賢), 곧 선현을 제사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현은 『예기』 「제의(祭義)의 말이다. '제후에게 덕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조는 이것을 '교육이 현자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령과 덕, 문장과 공경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했다. 곧 정조는 이 사현의 논리를 끌어들이 정치·통치기술로 활용한 것이다.

430편에 이르는 정조의 치제문은 왕실인물, 선현, 노론계 인사, 생부인 사도세자 관련 인물, 자신과 관련된

인물 등이 주를 이룬다. 송시열을 비롯한 민유중, 권상하, 김수항 등 노론계 인사 외에도 이종성, 이천보, 서지수 등 아버지 사도세자를 보필했거나 보호한 인물들, 김종수, 서명응, 남유용 등 세손 시절 자신을 보양하거나 재위 시절 신임을 얻었던 인사들에게 치제했다. 외가인 풍산홍씨 집안에도 자주 치제했는데, 외조



송시열을 제향하는 여주 대로사(大老祠)에 보낸 치제문

부인 홍봉한은 13차례 치제문을 보냈다.

치제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도 정조는 특이했다. 통상 제사는 기신일(忌辰日)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복(成服), 발인(發柩) 등 치상(治喪)의 과정에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조는 이 외에도 시호를 내린 선시일(宣謚日), 과거 합격자 발표인 방방(放榜), 신도비 건립처럼 다양한 의식에 치제문을 내렸다. 특히 풍산홍씨 집안 후손이 과거에 급제하자 치제하거나 남공철이 급제하자 아버지 남유용에게 치제하기도 했다.

정조는 유독 이순신과 송시열을 존경했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1792년 강진 탄보묘(誕報廟)에 치제하고, 1795년 왕명으로 『이충무공전서』가 간행되자 다시 치제했다. 이는 이순신이란 인물은 아무리 높여도 과장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조의 송시열 치제는 개인적인 존경과 함께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남인을 등용함으로써 노론과의 관계가 원만

하지 못했던 정조가 송시열을 높이고 그의 문집을 왕명으로 간행하게 한 것은 노론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자운서원(紫雲書院), 소현서원(紹賢書院), 화양서원(華陽書院) 등 17곳의 서원에 치제한 것도 특이한 사례다. 서원의 제향 인물이 조선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를 통해 배출된 사림이 정계에 진출해 조선 후기 정치권을 장악했지만, 서원의 제향 인물에 대해 치제한 경우는 이전 국왕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더구나 치제한 대다수가 노론계 서원이라는

점은 정조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 준다.

신하에 대해 치제하는 선례를 남긴 영조와 글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 송시열의 사례는 정조의 치제문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국왕이 치제문을 지어 내린다면 후손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으며, 가문에 은혜를 베푼 국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된다. 정조는 치제문을 통해 사도세자를 비호하거나 자신을 도운 집단, 외가인 풍산홍씨를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통치의 안정성을 모색한 것이다.

책 속에 흐르는 선율

찬호께이 『디오게네스 변주곡』 & 14개의 클래식 음악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홍콩 출신 추리소설가 찬호께이의 『디오게네스 변주곡』(한스미디어, 2020)은 작가의 작품 활동 10주년을 맞아 발간된 단편집으로, 14개의 단편과 3개의 습작이 수록돼 있다.

해를 가리고 서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의 일화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악곡의 한 형태인 '변주곡'이 결합된 『디오게네스 변주곡』이란 제목은, 상상 속에 폭 빠진 디오게네스 상태로 창작된 작품들을 모아 하나의 변주곡처럼 잘 포장해 내놓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집은 '변주곡'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각 단편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 14곡을 선정해 열네 단편의 부제처럼 소개하고 있다.

첫 작품 「파랑을 엿보는 파랑」에는 쇼팽 <24 전주곡> 4번이, 마지막 작품 「숨어 있는 X」에는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마지막 악장이 선정돼, '전주곡'으로 시작해 '피날레'로 마무리되는 형태를 취한다.

쇼팽 '전주곡'과 브람스 '피날레' 사이에는 리스트,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드보르작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좀 낯선 생상스, 풀랑크, 포레,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히나스테라, 존 아일랜드의 작품도 들어있다. 크리스마스 저녁 교각 아래 '화로'에 모인 노숙자들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산타클로스 살인 사건」에는 '불꽃'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생상스의 <하바네라, 작품번호 83> 1악장이, 「환각」 증세로 사람들 정수리에 달린 괴물체를 보는 남자 이야기인 「정수리」에는 프로코피에프의 <찰나의 환영> 15번 '불안'이,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남녀로 시작되는 「올해 제야는 참 춥다」에는 낭만적 선율로 유명한 라흐마니노프의 <파카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제18변주가 짝을 이룬다.



The Diogenes Variations, Op. 5

'화로'와 '불꽃', '환각'과 '환영', '남녀'와 '낭만' 등 작품과 일치하는 클래식 음악 요소에 너무 빠지지 않는 마시길 바란다. 교묘한 트릭과 놀라운 반전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만든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이기 위한 꾀물일 수 있다는 사실.

※ 유튜브에 '비전성남 책속선율 디오게네스 변주곡'을 입력하면 책 속에 담긴 14개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책 『디오게네스 변주곡』 보유 도서관은 중앙·중앙·북정·분당·구미·서현·판교·판교어린이·해오름도서관이다.



찬호께이
『디오게네스 변주곡』





2021년 8월 프로그램



2021년 8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참여방법
비대면	그린섬with 에코톡	8. 7(토), 8. 8(일) 10:00~10:30	초등학생	'생물종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원예 프로그램 (8월: 생물종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_멸종위기종 '물란' 식부작)	담당자 문의 (031-604-9552)
	에코복살롱	8. 21(토) 13:00~15:00	판교 인근 직장인 및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다양한 주제의 환경 도서를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8월: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상품이 된 공기』, 장재연)	담당자 문의 (031-604-9562)
우리 씨앗 나눔 & 텃밭 교육		8. 28(토) 10:00~13:00	5세 이상 가족	우리나라 토종 채소 씨앗을 나눔하고, 씨앗 심기와 관련된 텃밭 활동을 진행하는 원예 프로그램(8월 나눔 씨앗: 게겔무, 옥지기 밀앗)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031-604-9552)
동화꾸러미		8. 24(화) 11:00~11:30	영유아 단체 기관 (4~5세)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동화구연 프로그램(더위를 피하는 동물들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배워요,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집을 찾고 있어요)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에코키즈카페		일요일 10:00~11:30	5~7세 어린이 1명+ 보호자 1명	어린이와 보호자가 짝을 이루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면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 (8월: 여름을 물들여라)	
새친구 동고비		8. 28(토) 10:00~11:30	7세 이상 가족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프로그램. 필드스코프와 쌍안경을 이용하여 탐조를 통해 조류의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탐조 여름방학특강		8. 3(화), 8. 6(금), 8. 10(화), 8. 13(금) 10:00~11:30	초등 1~3학년	필드스코프와 쌍안경을 이용하여 탐조를 통해 조류의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8월: 어서와~ 해오라기는 처음이지?)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신청 시, 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8. 7(토), 8. 14(토) 13:00~14:30 8. 8(일), 8. 15(일) 15:30~17:00	8~10세 가족	대기오염의 실체와 원인을 알아보고 대기오염의 원인 중 미세먼지가 우리 몸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배우는 미세먼지 감소 생활화 프로그램	
에코 어스		토요일 15:30~17:00	초등학생과 가족	생활 속 우리 몸에 유해한 환경 물질을 알아보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보며 아이들의 생활양식에 친환경을 플러스하는 에코어스!(8월: 미세플라스틱 없는 치약 만들기)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 10:30~12:00	개인 7~10세	우리 전통의 놀이 방법으로 놀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난 놀이도구들로 모두가 신나고 건강해지는 전래놀이 프로그램(8월: 정승놀이(계급), 손놀이 축구, 어미새 아기새(가위바위보))	- 신청 시, 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놀이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9~12세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다양한 게임과 놀이 등의 체험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8월: 에코과자왕)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고, 그 속에서 놀이와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 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8월: 여름 곤충)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5세 이상 가족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리폼해 창작물을 만들며 만족감과 창의성을 키우고 나만의 소품도 만들어 가는 에코창작 프로그램(8월: 신문지로 놀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교육과 <http://ppark.seongnam.go.kr>, 031-604-9562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8월 - 습지는 보물창고!
에코키즈 B			초등단체	
맹산숲속이야기		토, 일 오전/오후	유이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토, 일 오전/오후	유이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3분기: 유이가족-나의 보물상자/초등가족-나의 보물상자
절기따라생태원가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초등가족	매달 있는 24절기를 배워보고 절기에 맞는 활동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1차시(1월~6월)·2차시(7월~12월)
비 대 면 프 로 그 램	셀프생태탐사	상시	가족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미션 을 해결해보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설명 책자를 보고 완성해보는 프로그램(내 마음대로 산반)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목공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유튜 브 동영상을 보며 환경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자 연물로 만드는 모기 기피 필지/제로웨이스트(프로듀스 백 만들 기)/자원순환을 이용한 썬캡)
	곰지락 환경이야기			1탄부터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홈페이지에 참여 후 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나무 이야기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타지 않고 걷는 활동을 실천해보며 소 배출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걷는 사 인을 찍은 후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후기]에 남겨 참여)
특 별 프 로 그 램	타지 말고 견자꾸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시민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생태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만들 기 체험 프로그램(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만들기, 내가 만드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자	8. 21(토) 오후 8. 22(일) 오전	초등가족	
방 학 프 로 그 램	가족이 함께하는 천연비누 만들기	8. 3(화) 8. 4(수)	초등가족	물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이며 우리 가족에게 맞는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지구를 살리는 액소, 천연비누 만들기)
	멸종위기 식물들 구하라~	8. 10(화) 8. 11(수)		생태원에서 대제사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멸종위기 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멸종위기 식물 찾아보기, 워터보 를 활용한 세밀화 그리기)
	오전의 산책	8. 5(목) 8. 6(금)	유이가족	생태원을 둘러보며 여름의 생태원 모습을 탐색해보는 프로그램 (자연물을 이용한 손수건 물들리기, 모기기파제 만들기)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관람		상시	전체	27가족 10명 이내로 입장 제한(개구리이야기, 새이야기, 곤충이야기)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단체	도슨트, 환경 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상시	전체	생태원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_맹산환경생태학습 원]을 검색 및 구독해 다양한 영상 시청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관람객은 건물 입장 시 발열체크하고 방문객 일일점검표 작성이나 QR인증(전자출입명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개설 및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



2021년 8월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청년 지원센터	청년 온라인상담 게시판'불편지'	연중	온라인	청년 (만 19~34세)	진로, 연애, 대인관계 등 각종 고민을 청년포래상담가 '마음지기'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불편지 게시판	070-4908- 2090~2094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청년 프로그램 설명 및 수강신청, 청년 대상 이벤트, 청년지원센터 소식 등	홈페이지 접수 www.snspring.or.kr																			
	청춘상담소 '비건다이어닝'	8. 6(금) 19:00	온라인 및 센터		성남 청년들의 몸과 마음 치유·힐링 프로그램, 센터 방문해 비건키트 수령 후,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 참여	유선 별도문의																			
	『청년안테나학교』 소모임 신규총원	8월 중			5개 소모임(성남청년 먹고사니즘, 인생영화, 우리들의 열정은 백만불짜리, 그마플, 빗우리) ※ 소모임별 모집기간 상이																				
중원 청소년수련관	영어소토티어링 블루버드	9. 4(토) ~ 11. 27(토)	작은도서관	초등 1~2학년(12명)	- 모집기간: 2021. 8. 7(토) ~ 마감시 - 내용: 영어책 읽어주기 및 영어체험활동 프로그램	선착순 전화접수	031-729-9354																		
	소곤소곤 이야기 도서관	8. 7(토) ~ 11. 13(토)	초등 1~2학년(10명)	- 모집기간: 2021. 7. 9(금) ~ 마감시 - 내용: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진행																					
	편테크 경제교실	8. 11(수) ~ 25(수)(3회)	4층 도서관	초등 3~4학년(15명)	- 모집기간: 2021. 7. 6(화) ~ 8. 10(화)까지 - 내용: 초등 대상 경제교육과 체험활동 운영	선착순 전화 및 온라인접수	031-729-9373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공정무역홍보관 및 공정카페'잇' 리뉴얼&오픈	8월 ~ 연중	수련관 1층 공정카페	청소년 및 시민	전국 청소년시설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받은 공정무역 홍보관 및 공정카페 '잇'이 리뉴얼 후, 8월 오픈	유선문의	031-729- 9430~9435																		
분당청자 청소년수련관	경기도청소년 종합예술제 in 성남	8. 10(화) ~ 8. 14(토)	온라인 (성남시 청소년 재단 유튜브)	초3~고3 청소년(만 9~18세)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in 성남 예선 심사 (총 18개 종목) <table><tr><th>구분</th><th>8. 10(화)</th><th>8. 11(수)</th><th>8. 12(목)</th><th>8. 13(금)</th><th>8. 14(토)</th></tr><tr><td>오전</td><td>한국음악/성악독창</td><td>서양음악/성악합창</td><td>한국무용/독무(군무)</td><td>성악음악/기악독주</td><td>대중음악(개인)</td></tr><tr><td>오후</td><td>한국음악 기악 독주 및 합주</td><td>사물놀이 얹은반 및 농악</td><td>현대무용 발레(독무/군무)</td><td>시, 산문</td><td>대중음악(밴드) 댄스</td></tr></table>	구분	8. 10(화)	8. 11(수)	8. 12(목)	8. 13(금)	8. 14(토)	오전	한국음악/성악독창	서양음악/성악합창	한국무용/독무(군무)	성악음악/기악독주	대중음악(개인)	오후	한국음악 기악 독주 및 합주	사물놀이 얹은반 및 농악	현대무용 발레(독무/군무)	시, 산문	대중음악(밴드) 댄스	-	031-729-9535
	구분	8. 10(화)	8. 11(수)	8. 12(목)	8. 13(금)	8. 14(토)																			
	오전	한국음악/성악독창	서양음악/성악합창	한국무용/독무(군무)	성악음악/기악독주	대중음악(개인)																			
	오후	한국음악 기악 독주 및 합주	사물놀이 얹은반 및 농악	현대무용 발레(독무/군무)	시, 산문	대중음악(밴드) 댄스																			
	성남시청소년 아울림마당	8. 28(토) 13:00~15:00	청소년 및 지역주민 (400명)	청소년동아리 공연, 영역별 체험활동 운영	온라인 접수 예정	031-729-9536																			
청소년 안전망 멘토모집	연중	수련관 상담실 및 유관기관	성인	- 대상: 지역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직업분야 실무자 - 내용: 청소년 학습·진로 멘토링, 청소년안전망 홍보 등 - 신청방법: 수련관 홈페이지(http://www.tenten21.or.kr/) 참조	이메일 접수	031-729-9560																			
화상회의실 & 스마트워크 부스 공유공간개방		수련관 1층 스페이스 및 스마트워크부스	청소년,기업,시민 등	온라인 화상회의실, 독립부스, 메이커장비(3D 프린터 및 레이저커팅기 등) 공간개방	메이클올 사이트	031-729-9551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공간 무료 대여	8월~12월	수련관 동아리실 및 코딩공작소	청소년 및 청년	동아리실(4곳), 청소년코딩공작소	판교청소년수련관 네이버예약	031-729-9635 031-729-9637																		
	판교목공 클래스	8. 21(토) 13:00~16:00	수련관 2층 열두달 나무공방	초등 4학년 ~ 성인 (24명)	- 목공체험(나무도마 만들기) - 접수기간: 2021. 7. 26(월) ~ 8. 13(금) 18:00 (선착순) - 참가비: 1인 20,000원	수련관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031-729-9654																		
분당야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유레카	연중	수련관 및 야외체험장	초등 5~6학년 (40명)	과학탐구프로젝트활동(SI-PBL),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체육활동, 코딩교육, 동아리활동, 상담, 생활관리, 급식지원, 주말체험활동 등	유선문의 후 방문	031-729-9840~2																		
성남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접수	연중	성남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만 9~24세)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교복지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및 72%이내 해당 청소년 ※ 자세한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유선문의 후 공문접수	031-729-9116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		전화 및 대면상담	만 13~18세 학교밖 청소년 (성남 거주 1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을 위한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분기별 1회 상담 및 15만 원 지원, 자기계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제적증명서, 신분증 지참)	유선문의	031-729-9172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해찬양빛길 지역아울 축제	8. 14(토)	문화의집	청소년, 지역시민	마을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 축제	유선문의	031-729-9955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청소년이 직접 온·오프라인의 축제 현장 참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



제30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개최

- 대상 관내 학교 초·중·고 학생 및 성남시민 누구나(1인 1건)
- 주제발표 2021. 7. 12(월)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 공모기간 7. 24(토) 10:00 ~ 8. 20(금) 17:00
- 수상발표 2021. 8. 25(수)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 접수 이메일(culture0645@hanmail.net)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31-756-1082

우리동네 화가와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 전시기간 2021. 7. 1(목) ~ 8. 31(화)
- 장소 마누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 참여작가 김명희, 김미아, 안소영, 이지윤, 임영주
- 전시연계 교육 2021. 7. 16/23(금), 8. 6/13/20(금), 총 5회
- 관람시간 평일 10:00~18:00/주말 및 공휴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 휴관,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문의 031-754-9696

경찰청 주관 2021년 ‘평화사랑 공모전’ 개최

- 대상 모든 국민(경찰 포함)
- 주제 평화 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
- 분야 UCC, 사진(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포스터(성인/중·고등/초등)
- 기간 2021. 6. 21(월) ~ 9. 11(토) •작품 심사 9. 14(화) ~ 9. 30(목)
-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평화사랑.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수상작 공고 10. 7(목) 공모전 홈페이지
- 시상식 및 전시회 11. 3(수) 15: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
- 문의 02-6953-1410(pyeonghwasarang@contestweb.net)
카톡 플러스 친구 @평화사랑 공모전

2021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선발 예정 인원 총 69명/ 2억1,600만 원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국가기관 등 기타 장학 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받고 있지 않은 학생(자세한 자격 요건은 홈페이지 참조)
- 접수 일정 2021. 8. 9(월) ~ 8. 13(금) 18:00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절차 신청서 작성(본인 작성,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장학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031-729-4811, 2

우체국 우편물 접수 시간 조정 안내

- 우편 창구 운영시간 평일 9:00~18:00
- 우편물 접수 운영시간(평일) ※ 2021년 7월 1일(목)부터 시행

관서명	오늘 출발 접수 시간	다음날 출발 접수 시간	관서명	오늘 출발 접수 시간	다음날 출발 접수 시간
위례	09:00~17:30	17:30~18:00	성남태평동	09:00~17:30	17:30~18:00
성남태평2동(취)	09:00~17:20	17:20~18:00	성남정든마을(취)	09:00~17:00	17:00~18:00
성남고등동(별)	09:00~17:30	17:30~18:00	성남구미동	09:00~17:20	17:20~18:00
성남수진2동(취)	09:00~17:30	17:30~18:00	성남서현2동	09:00~17:20	17:20~18:00
성남공단	09:00~17:20	17:20~18:00	성남야탑목련(취)	09:00~17:20	17:20~18:00
성남상대원	09:00~17:30	17:30~18:00	성남야탑동	09:00~17:30	17:30~18:00
성남하대원(취)	09:00~17:30	17:30~18:00	성남정자동	09:00~17:30	17:30~18:00
성남가천대학교(취)	09:00~17:10	17:10~18:00	성남서현1동	09:00~17:30	17:30~18:00
성남중원(취)	09:00~17:30	17:30~18:00	성남수내동	09:00~17:30	17:30~18:00
성남도촌동	09:00~17:30	17:30~18:00	성남운중동	09:00~17:30	17:30~18:00
성남금동(취)	09:00~17:20	17:20~18:00	성남삼평동	09:00~17:30	17:30~18:00
성남단대동	09:00~17:30	17:30~18:00	성남구미무지개(취)	09:00~17:30	17:30~18:00
성남수진동	09:00~17:30	17:30~18:00	성남탑마을(취)	09:00~17:30	17:30~18:00
성남금광동	09:00~17:20	17:30~18:00	성남한솔마을(취)	09:00~17:30	17:30~18:00
성남수전역(취)	09:00~17:30	17:30~18:00	판교테크노밸리(취)	09:00~17:30	17:30~18:00

다음날 배송되기 위해서는 “오늘 출발” 접수 시간까지 익일 특급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출발” 접수 시간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은 다음날 영업일에 출발합니다.

성남우체국 031-744-0001

성남시 여성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 모집 부문 소프라노/메조/알토(각 0명)
- 자격 요건 만 55세 이하 성남시 거주 여성 중 음악에 관심 있는 분, 비전공자 환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연습 일시 화, 목 10:30~13:30(주 2회)
- 연습 장소 금광청소년 비전센터 3층(수정구 산성대로 613), 코로나19로 동영상 연습 병행
- 입단 방법 오디션 후 입단 •문의 010-4585-4158(단장)

생명사랑 YWCA 돌봄직종 취업교육

- 베이비시터 8. 24(화) ~ 8. 27(금) 13:00~18:00
- 가사관리사 9. 2(목) 13:00~18:00
- 교육장소 성남YWCA 교육실 (분당구 별말로 33, 401호)
※ 신뢰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가정 문의 환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031-701-2501, 2

자영업자 미소금융 대출

- 대출상품 개인사업자 운영 및 시설자금(2천만원 한도, 이율 년 4.5% → 성실상환시 년 3.5%)
- 자격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4점 이하)에 해당하는자 또는 신용평점이 양호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수혜자
- 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LG미소금융재단 031-697-8136, 8146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주택연금 가입하세요”

- 가입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대상 주택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02)3290-6523, 6526, 6527, 6529

스마트폰 중독 경험 및 극복 사례 공모전

상금: 대상 200만원

공모주제
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피해
②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 및 개선 후의 변화

참가대상
성남시의 시민, 직장인, 학생(14세 이상)

접수기간
2021.6.14(월) ~ 2021.8.1(월)

시상내역
총 10작품 선정

대상(1작품)	시상금 200만원
최우수(1작품)	시상금 150만원
우수(1작품)	시상금 100만원
장려(2작품)	시상금 50만원
가작(5작품)	시상금 10만원

접수방법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 중독 사례 공모전 > 접수하기] 또는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접속하여 신청

결과발표
2021년 8월 18일(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 중독 사례 공모전 > 이벤트 공지]에서 확인

문의
홈페이지 [사업안내 > 중독 사례 공모전 > Q&A]에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nac.or.kr)를 참고해주세요.

성남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남시 1인가구를 위한
도란도란 도시텃밭 가꾸기
참여자 모집

참여기간 : 2021년 7월 ~ 12월(매주 금요일)

장 소 : 동원동 소재 텃밭

참여대상 : 분당구 구미동 1인가구 누구나

내 용 : 작물관리, 재배, 나눔활동, 주민모임 등

활동문의 : 031-718-2779 / 배성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정호종합복지관
하안마을복지회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2021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연계 기획전시

이번 여름의 식물원은 우리에게 어떤 색깔로 빛날 까요?

식물이 담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을 미술놀이로 표현합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2021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진행됩니다.

7.22. 목요일

8.22. 일요일

신구대학교식물원
갤러리 우촌 기획전시실

경기도 성남시 신구대학교식물원 갤러리 우촌

2021년도 8~9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수정구청	원도우10 & 인터넷 (대면 집합교육- 수정구청 3층 전산교육장)	성남시민 중 코로나 예방접종 (1차 또는 2차) 후 14일 경과자	9. 1 ~ 9. 30	월~금 10:00~12:00	13	8. 16(월) 09:00 ~ 8. 27(금)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조기마감 가능) - 성남시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 ※ 대면집합교육과목의 경우 교육 첫날 예방접종 증빙서류 지참 필수 문의: 정보통신팀 031-729-5072
	이미지 & 동영상편집 (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월~금 14:00~16:00	30	
수정도서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기본기능, 다양한 슬라이드 작성(온라인교육)	성남시민	8. 3 ~ 8. 20	화~금 10:00~12:00	10	7. 20(화) 10: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수정도서관(https://snlib.go.kr/sj)
중원도서관	50+ 함께 준비하는 스마트 생활(온라인교육)	50세 이상 성남시민	9. 1 ~ 9. 30	화~목 10:00~12:00	24	8. 17(화) 10:00 ~ 8. 19(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조기마감 가능) - 중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snlib.go.kr/jw) 문의: 평생학습지원팀 031-724-0672
	나도 유튜브! 파워디렉터 동영상(온라인교육)	성남시민		화~목 19:00~21:00	2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온라인교육)	windows10 & 인터넷 & 한글	장애인 및 가족, 65세 이상 성남시민	7. 1 ~ 9. 30	월·수·금 09:20~10:40	20	수시모집 010-5184-6884(031-732-6884) ※ 과목·시간 변경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강의로 진행. 대면강의 진행 시 별도 연락 예정
	컴퓨터 기초멀티미디어			월·수·금 10:40~12:00	20	
	ITQ 한글			월·수·금 14:20~15:40	20	
	ITQ 엑셀			월·수·금 15:40~17:00	20	
	ITQ 파워포인트			화·목 10:00~12:00	20	
	포토샵(GTQ자격증반)			화·목 12:00~14:00	20	

※ 수정·중원·분당구청, 중앙·수정·중원도서관의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031-729-5072, 중원구청 031-729-6071, 분당구청 031-729-7071, 중앙도서관 031-729-4635, 수정도서관 031-724-0627, 중원도서관 031-752-3913



호걸들의 피리 소리 흥겨웠던 상적동, 적푸리 마을 산과 물이 품고 있는 마을은 발걸음한 이들에게만 모습을 보여 준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동네 한바퀴 취재는 늘 설렌다. 상적동에 처음 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같은 장소만 들렀다. 그래서였을까. 상적동 골목을 돌면서, 친한 것 같지만 데면 데면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적동에 들어가기가 이전보다 쉬워졌다. 11-1번 마을버스만 오가던 길을 누리 2번, 341, 342번 버스가 다니고 있다. 자동차 도로 말고도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다. 상적동은 윗골, 아랫골, 적푸리를 합한 동네다. 윗골의 상(上)과 적푸리의 적(笛)을 합해 상적이라 불리게 됐다. 1882년 임오군란 때 피난 가신 명성황후가 이 마을에서 점심을 들고 갔다. 제일 먼저 신구대식물원을 찾았다. 식물원에는 수국과 백합, 해바라기가 한창이었다. 진초록의 평온함에 보라, 노랑, 하양 꽃이 산뜻함을 더했다. 신구대식물원은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여러 가지 꽃을 전시하고 있다. 꽃은 발길을 붙잡고 관람객은 사진기에 꽃을 담았다. 8월에 식물원을 찾으면 다양한 품종의 연꽃과 수련을 볼 수 있

적푸리

애초에 적(笛)무리에서 변형됐다. 적무리는 옛날에 호걸들이 모여 피리를 불며 놀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때는 저풀이 또는 적드리로 불려지기도 했다 (출처: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역사).

* 상적동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이다.



다. 식물원 내 어느 길을 가도 좋지만, 식물원을 크게 돌아 고층습지원으로 가까이 갈수록 한적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곳곳에 놓인 두꺼비 모형이 눈길을 끈다. 새끼 두꺼비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는 두꺼비들도, 사진을 찍는 두꺼비도 있다. 두꺼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에는 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식지를 잃은 두꺼비에 대한 미안함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식물원의 뜻이 담겨 있다. 식물원에 습지를 두고 양서류 생태관을 만들어 두꺼비가 번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과 앉아서 보는 풍경은 어떻게 다를까. 걸으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 눈길을 보냈다면 앉아서 주변 풍경을 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1~6시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공휴일 제외).

식물원을 나와 먹거리촌 내 음식점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도로 옆 대왕저수지는 1958년에 준공됐다.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그곳에 십여 가구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식사하러 들어간 손두부집 주인에게 들었다.

동네 안으로 쭉 들어가 보았다. 낮은 오르막길에는 주택들이 모여 있다. 여러 번 다녀왔지만 식물원과 먹거리촌 뒤에 마을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 더구나 식당 뒤로 마실길이 연결될 줄이야. 찬우물골 농장 쪽으로 내어진 마실길은 또 다른 분위기다. 산 냄새가 난다. 이정표가 사방을 가리키며 인릉산, 심곡동, 고등동으로 길을 안내했다. 심곡동 방향 내리막길 다음으로 펼쳐진 농촌 풍경에는 배나무에 배가, 호박 덩굴에 호박이, 포도송이가 몽글몽글 영글어가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숨을 고르게 다듬어 준다. 산, 도시, 농촌의 모습이 한 동네에 다 들어 있다. 걸모습만 보고 어찌 알 수 있었을까. 온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 주지 않는 상적동에 숨은 매력이 더 있지는 않을까, 행여 있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01 신구대식물원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풍경 02 습지생태원 03 배나무 04 마실길, 이 길에서 좌회전하면 인릉산에 오를 수 있다.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꼭 붙잡고 싶어요!

윤미라 분당구 야탑동

몇 주 전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심란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끼고 있던 반지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욕실이며 장롱이며 집안 곳곳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저번에는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를 깜빡해서 불이 날 뻔하지를 았나. 이렇게 나이를 먹는 게 무섭다! 이러다 너희한테 짐이 되면 어쩌니?” 하시며 자리에 누워 버리셨어요. 그 후로도 당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고 매번 주눅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저 역시 영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됐어요.

사실 어머니는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아직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금반지를 사서 몰래 어머니 댁 서랍에 넣어놨다가 “어머니! 여기 있었네요~~~ 여기 서랍에 잘 두시고는 괜히 그러셨어요!” 하고 반지를 찾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찾던 반지를 겨우 찾으신 어머니는 “그래! 그럼 그렇지! 다행이다~”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는 환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이렇게 돈을 써서라도 어머니의 기억을 붙잡아 드릴 수만 있다면 뭐든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해볼 텐데, 아마 그 일도 갈수록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 열심히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시간과 기억을 꼭 붙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제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함 사세요~~

성열봉 분당구 정자동

며칠 전 저녁나절, 놀랍게도 함진아비의 “함 사세요~~!”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와아~~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인가. 어둠이 내린 초저녁 골목길에 울려 퍼지던 그 구성지고 정겨운 소리를 이런 첨단 대도시에서 듣다니. 정말 감개무량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잠시 눈을 감고 어릴 적 일을 떠올려 본다.

결혼 전날이 되면 함잡이들이 색시 집으로 함을 팔러 가고, 100m 밖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장사가 시작된다. “함 팝니다. 함 사세요~!”

신랑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함을 지고 신부의 집에 다다르면 적당한 함값을 요구하다가 신부 친구들의 권주(勸酒)에 슬쩍 넘어가 준다. 신부는 받은 함과 무명 등을 잘 챙겨뒀다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간다. 그 한밤의 떠들썩한 전야제 함 팔이를 하고 다음 날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 날에는 동네 넓은 마당에 큼직한 양은술을 서너 개 걸어놓고 국수를 삶았다. 계란을 부쳐서 잘게 썬 고기와 함께 국수 위에 꾸미로 얹고 멸치 국물을 부으면 세상에 그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었다. 널찍한 철판을 돼지기름으로 몇 번 씻어내고 녹두부침개를 부쳐내는 동안은 니집 내집 할 것 없이 온 동네의 집들이 손님을 받는 잔칫집이 됐다.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복잡한 예식장에서 30여 분 만에 초고속으로 치르는 오늘날의 결혼식과 비교하면 정이 흘러넘친다. 징과 팽과리, 장고를 치는 농악대, 함진아비와 등불을 든 사람들이 이웃 형님과 누님의 혼인을 축하해주며 신명나게 놀던 마을 축제. 두 사람의 결합이 온 동네의 경사였던 그때가 참 그림다.

성남의 신혼부부들의 행복을 빈다.

photo

소녀상 앞에서



작열하는 햇볕을 꼼짝없이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안타까웠을까요,
누군가 성남시청 광장의 소녀상에 모자를 씌워주셨네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시간은 가슴에 새겨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진주 수정구 태평동

지친 일상, 힐링 한 모금



섬말공원에 가면 개구리와 거북이가 사는 예쁜 연못이 있습니다.
정자에 앉아 연꽃을 구경하고 있으면 경회루 부럽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어 보냅니다.

김미향 중원구 도촌동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A4 ½장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 사람들-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6일(금)까지 보내주세요(주소, 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031-729-2076~8 이메일 sn997@korea.kr



소망과 행운을 새긴 도장

이름에 담긴 뜻을 소중히 생각하는 성진인재(태평3동) 박성길 대표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젊을 때는 하루에 도장 100개를 만들었어요. 밤을 새워 일했어요.”

성진인재 박성길(73) 대표는 18세에 도장 재료를 납품하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배웠다. 군 전역 후 성남에 자리를 잡고 도장 재료 판매와 함께 도장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세월의 흔적을 말해 주듯 가게 내부 벽면이 누렇게 바래있다. 그 위로는 도장과 관련해 취득한 여러 특허권이 가게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 성남에서 손으로 도장을 파는 곳은 없어요. 저도 손님이 원하면 손으로 새기지만 기계로 도장을 새깁니다.” 손으로 이름을 새기던 박 대표도 25년 전부터는 기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도장 새기는 기계를 직접 만들고 특허를 내기도 한 박 대표의 손때 묻은 인장 조각대와 인장 조각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장(을) 찍다: 문서에 도장을 찍어 약조를 맺다 (표준국어대사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닌 문서로 남겨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장을 찍다’는 말은 ‘사인(sign)하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도장을 꼭 눌러 찍었지만 그 자리 또한 사인(서명)이 차지하고 있다. ‘돈은 빌려줘도 도장은 빌려주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장은 그 사람의 분신이자 신표로 여겼다.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행기는 인감도장에는 특히 그 의미를 크게 뒀다. 졸업, 입학, 취업을 기념해 선물 품목에도 올랐던 도장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급할 때 막 파서, 막 쓴

다 해서 막도장이라 불리던 묵도장이 300원 하던 시절부터 5천 원 하는 지금까지 긴 세월이 흘렀다. 도장이 쓰이는 곳이 줄어든 성남에 150여 곳 되던 도장가게가 지금은 30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박 대표가 보여 준 도장에는 이름 외에 한 획이나 두 획이 더 새겨진 것도 있다. 사주에 따라 획수를 조절해 새긴다고 한다. 또한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획수와 사주에 따라 이름 뒤에 신(信), 장(章), 인(印)을 새긴다.

도장이 중요한 계약에 쓰였기 때문인지 도장의 재료 또한 중요했다. 액운을 막아 준다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벽조목), 행운

을 가져다준다는 상아, 강인함을 의미하는 무소뿔 재료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도 많았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한 그루는 성남의 집 열 채 값이기도 했다. 벽조목 두 조각이 맞부딪치는 소리는 일반 나무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와 달랐다.

빨간 인주를 묻혀 찍은 도장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다. 중요한 계약이 잘 성사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도장에 같이 새겨진다.

“의미가 남다른 재료에 획수에 맞게끔 새겨진 도장의 덕을 봤다”며 가족과 지인 선물용으로 재주문이 들어올 때면 박 대표는 뿌듯하다.

“도장 업계 일인자를 자부하지만 나이 드니 눈의 초점은 흐려지고 인장 조각대 위의 인장 조각칼이 버거워진다”는 박 대표 앞에서, 손으로 새겨진 도장에 담겨 있는 유일함과 예술성이 너무 먼 옛날이야기로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전해진다.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



01 25년 전 집 열 채 값 주고 구입했다는 벽조목 한그루가 도장 재료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02 정성껏 손도장을 새기는 박성길 대표 03 인장조각대전 출품작

04 정성을 다해 한 획, 두 획 이름을 새기는 작업 05 박성길 사장의 손길로 새겨진 도장들

06 도장 가게를 알리는 도장 모형이 걸려 있다. 07 이름에 담긴 뜻을 소중히 생각하는 성진인재 박성길 대표